

SNK, 가정용 게임기로 “글로벌 정조준”

- 가정용 아케이드 게임기 'SNK NEOGEO MVSX', 북미/유럽에 11월 정식 출시
- 콘솔 게임 문화의 메카, 글로벌 시장 두드린다



SNK가 글로벌 게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NK는 홍콩의 게임기 제조업체 지스톤(G-stone)사와 라이선스 및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홍콩의 유명 게임 제조업체인 지스톤사와 함께 SNK의 90년대 아케이드 게임 대표작을 한 데 모은 가정용 아케이드 게임기 'SNK NEOGEO MVSX'를 북미와 유럽지역에 정식 선보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게임기는 오락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모양과 MVS(Multi Video System)을 의식한 케이스 디자인을 채용하여 W19.4인치 x D15.4인치 x H25.0인치(약 39 x 49 x 64cm)의 크기를 갖고 있으며, 무게는 28lbs(약 12.7kg)으로 제작된다. 가정용 아케이드의 바탕들처럼 본체는 탁상형 제품이지만, 오락실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거대한 전용 받침대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 이 받침대를 합치게 되면 전체 높이가 57인치(약 1.5m) 정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Idragons Creative Studio는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영상 작품의 개발과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경험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회사로 대표작 ‘야형협영(영문명: Dragon Agents)’ 과 KOF: 데스티니’ 가 있다. 특수효과 및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할 Original Force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전념하는 회사로 'Monster Hunt', ' L.O.R.D(Legend of Ravaging Dynasties)', ' Duck Duck Goose' 등 중국 내에서 여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SNK 전세환 대표는 “SNK의 IP 라이선스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장은 아시아인데 이번 영화는 전세계 애니메이션 팬들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현재 아시아에서 인기 몰이 중인 킹오파 게임의 캐릭터가 직접 출연하는 만큼, 개봉 이후 회사의 가치와 매출 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킹오파'는 SNK가 개발한 고전 격투게임으로 1994년에 탄생했다. SNK의 대표작으로 클래식 아케이드 게임 뿐만 아니라 다년간 발전해 온 PS, XBOX 플랫폼에도 성공적으로 발매했으며, 이후 STEAM 등 PC 플랫폼에도 상륙해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IP다. 지난 2017년에는 애니메이션 'KOF: 데스티니'를 중국내에서 방영한 바 있는데, 당시 티저 조회수만 해도 수익 회에 달했다. <끝>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이은수 사원 (010-4491-7537 / eslee@snkcorp.co.kr)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